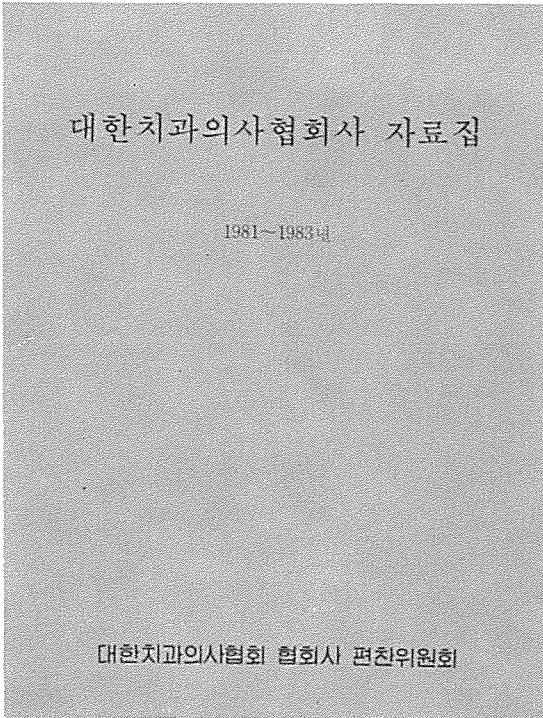


대한치과의사협회사 자료집 (1981~1983) 발간



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 편찬위원회(위원장 邊碩斗)에서는 81년부터 83년까지 협회사 편찬을 위한「자료집」을 발간하여 90년에 발간될 제 2 판 발행에 앞서 그간 정리된 자료의 오손과 분실을 막기위해 중간 편집 발행한 것으로서 4·6 배판 580면에 이르는 규모로서 50부를 발행하여 전국 지부에 배포한 바 있다. 邊碩斗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.

發 刊 辭

歷史는 나라를 위시하여 團體나 個人에 이르기까지 變遷過程을 날날이 記錄하여 뿌리를 保存해야 된다는 것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우리들 全 人類에 주어진 使命이라고 생각되며, 近世에 이르러 이를 더욱 強調되어지는 傾向인 것 같습니다.

이 使命에 大韓齒科醫師協會史라고 例外일 수는 없을 것 입니다.

그동안 本 協會의 協會史編纂委員會에서는 諸般 資料의 蒐集과 保存의 歷史的 使命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10年 周期마다 協會史를 發刊하기로 이번에 方針을 세운 바 있고, 또한 그 資料集은 每 3年마다 刊行 保存기로 하였습니다.

協會史를 發刊하는 데는 確實한 正史를 만들기 위한 土台를 構築하고자 하는데 本 資料集을 發刊하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습니다.

本 資料集 發刊을 契機로 本 委員會 委員은 勿論이러니와 全會員의 關心을 集約한 홀륭하고 正確한 協會史를 定立하는데 寄與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습니다.